



## ■ 브라질, 새 표준철자법 시행



브라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포르투갈어 표준철자법을 시행한다. 브라질을 중심으로 포르투갈어권 국가에서 철자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 각국은 새로운 철자법 도입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새로운 철자법은 단일 국가로 포르투갈어 사용인구가 가장 많은 브라질 포르투갈어의 표기방식을 대체적으로 따르기로 했다. 따라서 'optimo'를 'otimo'로 표기하는 등 발음을 하지 않는 자음을 표기하지 않고 k, w, y 등 새로운 철자를 도입하고 강세와 이음표 사용 기준도 바뀌는 등의 변화가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새로운 표준철자법이 정착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다. 앙골라 등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새로운 철자법 도입에 찬성하는 반면 포르투갈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늘어나고 있다. 포르투갈 시인 바스코 그라사 무라(Vasco Graca Moura)는 브라질이 경제 이익을 위해 철자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고, 상당수 포르투갈인은 개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BBC Mundo》(2009. 1. 2)

## ■ 엘살바도르, 대선 앞둔 국회의원 선거에서 FMLN 승리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FMLN) 대통령 후보인 마우리시오 푸네스(Mauricio Funes)는 국회의원 및 지자체단체장 선거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엘살바도르 대통령 선거에서의 선전을 약속했다. 그는 FMLN이 이제 의회 의석수 37석으로 공화국민동맹(ARENA)을 누르고 다수당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을 지지하는 엘살바도르 유권자들

지자체 선거에서도 FMLN은 기존의 58명보다 많은 80명 이상의 지자체단체장을 배출하게 되었다. 수도인 산살바도르에서 ARENA 후보인 노르만 키하노(Norman Quijano)가 FMLN 후보 비올레타 멘히바르(Violeta Menjivar)을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된 데 대해 푸네스는 수도 또한 262개 자치단체 중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대다수 엘살바도르 민중이 변화를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푸네스는 대통령 선거에 앞서 공명정대한 선거 절차를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선거인명부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하며 선거인 명부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외국인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을 동원해 불법 투표를 자행하는 현 정부 여당의 술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 선거는 3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ALBA》(2009. 1. 22)

## ■ 콜롬비아무장혁명군, 아와 족 원주민 사살 논란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이 나리뇨 주(州) 바르바코아스 지역에서 아와 족(族) 원주민을 사살해 논란이 일고 있다. FARC는 2월 11일 안콜(Anncol)에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해당 지역 정부군 첩자로 활동한 원주민 8명을 처형했다고 시인했다. 이 성명서에서 FARC는 오히려 원주민들을 전쟁에 몰아넣고 죽게 만든 장본인은 원주민의 보호자 행세를 하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지난주부터 FARC가 아와 족 원주민 27명을 사살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국회의원이자 원주민 대변인인 라미로 에스타시오는 원주민 학살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강조하며 지속되는 정부군과 FARC 간의 무력충돌로 인해 원주민들이 생활 터전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내무부 및 법무부 장관의 주재 하에 인권위원회가 소집될 예정이라며 원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아와 족 원주민은 약 2만 5천명이며 콜롬비아 나리뇨 주와 에콰도르에서 생활하고 있다. 《텔레수르》(2009. 2. 17)

## ■ 우루과이,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실효법 위헌 논란

우루과이 의원총회는 표결을 통해 1973년부터 1985년까지 지속된 군사 정권 하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로 기소된 군인과 경찰을 사면하는 실효법(失效法)이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의회의 결정으로 법의 효력이 말소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110일 내에 실효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실효법에 대한 논의는 1974년 군에 의해 사살된 공산주의 운동가 나비아 사발사가라이(Nibya Sabalsagaray) 사건에 대한 조사 때문에 시작되었다. 검찰이 사건 조사를 위해 실효법의 법적 효력 말소를 요청했고 실효법 때문에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사건이 아직 다수 있음이 확인되면서 결국에는 실효법 자체에 대한 논의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1985년 실효법 제정을 승인했던 콜로라도당(Partido Colorado) 의원들은 법의 위헌 여부는 의회가 결정할 일이 아니며 또한 실효법이 사건 조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반면, 여당인 좌익연합(Frente Amplio) 의원들은 20년 동안 집권한 콜로라도당 및 블랑코당(Partido Blanco)이 실효법을 적용해 인권 침해 사건의 조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하며 실효법의 폐지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BC Mundo》(2009. 2. 25)



실효법 철폐 운동 포스터. “미래를 위해 서명합시다”라는 문구가 보인다.